

# 진홍색 집회

RYAN QUINN

ADAM GORHAM



DIABLO<sup>®</sup>  
IMMORTAL<sup>™</sup>

BLIZZARD<sup>®</sup>  
ENTERTAINMENT





## 진홍색 집회

DIABLO®  
IMMORTAL™

파편살이의 지도자가 된 후, 알브레히트 왕자는 오로지 자신과 같은 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샤르발 황야의 숲속 깊은 곳에서 알브레히트는 동족의 새로운 터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심산입니다.

작가 RYAN QUINN 작화 ADAM GØRHAM  
채색 JØRDIE BELLAIRE 레이아웃 CØREY PETERSCHMIDT  
식자 ANDWØRLD DESIGN 표지 ADAM GØRHAM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 개발, 선임 디렉터 VENECIA DURAN  
문학 및 도서, 선임 매니저 MATTHEW CØHAN  
편집 슈퍼바이저 CHLØE FRABØNI  
선임 편집자 MEGAN WALKER  
선임 브랜드 아티스트 CØREY PETERSCHMIDT  
제작 BRIANNE MESSINA, TAKAYUKI SHIMBØ, VALERIE STØNE, LAURA TAYLØR  
게임 팀 자문 DAVID LØMELI, RYAN QUINN, EMIL SALIM, BENJAMIN WAGNER,  
SHANNØN WILLIAMS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Blizzard.com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만화는 픽션입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이름,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로 사용되었으며, (생사를 막론하고) 실제 인물과 사업체, 사건,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는 작가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그 내용물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상쾌한 바람과 같았다.  
오랜 악몽의 끝이었다.

샤르발의 자유민.

철부덕

나처럼, 너도... 버려졌고, 잊혀졌으며,  
말조차 할 수 없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않았던 적은 없어.

내가 사랑했으니까.

하나 찾았어!

운이 좋은데.

네게 주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 가족이여,  
어떤 재앙에서도 살아남을 힘을 주고 싶다.

하지만 엔트스티그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내  
선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왕 폐하를  
위하여!

그들의 생각은 틀렸지만... 나는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자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어.

목숨을 부지하려면  
무기를 버려라!

도와주세요!

혹시 더 강하게 붙잡아야 했던 걸까.



네 이전에 난 혼자였다. 가족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난 새로운 가족 앞에서  
깨어났다. 파편살이.

우린 이름이 없었고,  
그런 건 필요 없었다.

우리는 파편을 쫓았다.  
우리 생각은 하나였다.

줄줄

줄줄

줄줄

우리는 우리만의 안식처를 갈망했다.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나는 직접  
건설해야 했다.

우리 수가 충분히 모이자,  
대지도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터전으로 환영해 주었다.

여기엔 우리 모두가  
머무를 공간이 있다.

우리 수는 전보다 줄어 있었다.  
이미 이곳에 살고 있던 자들에겐  
낯설고 두려웠다.

그들이 거닐 때마다...  
대지가 부패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빨리 없애 버려야지.

우리 가족이 더 빠르게 커져야 했다.  
샤르발은 터전 이상의 것을 주었다...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



우선, 난 센릭을 찾았다. 강한 신념으로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

그는 역시 나처럼  
너희를 위한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샤르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의 말은 들을 테니.

우리 안의 빛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왕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었지만,  
알브레히트가 되찾아 줄 거다.

그리고 강령술사 레테스가 날 찾아왔다. 고집 세고,  
냉혹하고, 자기만 아는 자. 너와는 많이 달랐지.

그래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려면 그  
여자의 힘이 필요했다.

당신이 직접 명령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왕자님.

망자가 일어났다!

약..

이런 힘이 널 지켜줄 수 있다.


대주교 라자루스는 살인자이자 배신자로,  
파편살이가 될 자격이 없다.

이제 세계적 파편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죄를 씻어야 우리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

엔트스티그에서는 우리를 괴물이라  
한다. 틀렸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전령이다.






나의 세계식 파편들은 이제 거의 소진되었지만, 우리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형성한 땅을 함께 쓰고 심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공전을 만들어 줘도... 그들이 불태울 거다.




나는 폭군이 아니다. 엔트스티그 사람들에게 자유의 평화를 제안했다.

빛이 널 데려가리라!



그들은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우리를 도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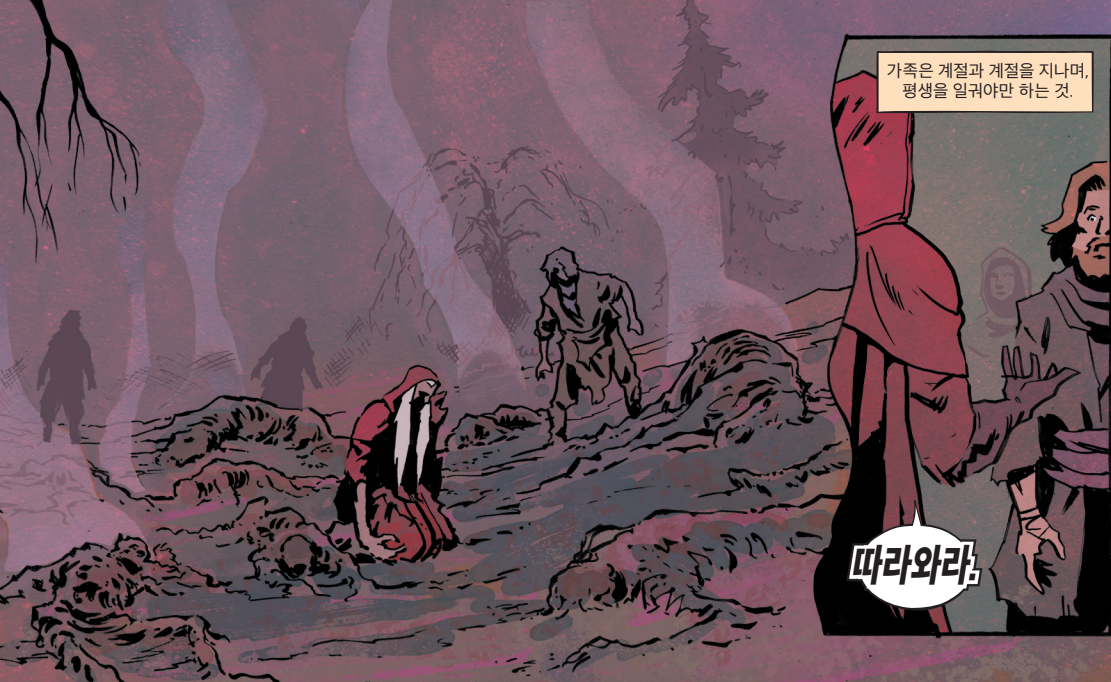
내 동족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나는 우리 모두를 지킬 거다.







가죽은 계절과 계절을 지나며,  
평생을 일궈야만 하는 것.

**따라와라!**



남은 우리에겐...  
기를 것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낙원, 우리의 터전,  
우리의 성역이 거의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릴 해치지 못할 것이다.